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블로거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전용숙소 개관	헬싱키
환경·안전	3	'공기청정지역' 도입해 대기오염 개선 추진	버밍엄
	5	'혐기성 소화' 소규모 쓰레기 처리시설 시범 설치	빅토리아
도시교통	7	안전한 등하곳길 조성 프로젝트 첫 사업 시동	시애틀
	9	온라인 주문 식료품, 지하철역에서 픽업 서비스	워싱턴 D.C.
	10	2020년까지 총연장 100km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	뒤스부르크·함
정보·기타	11	시민 질서의식 높이기 활동 프로젝트 시행	상하이
부록	13	2016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블로거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전용숙소 개관

100명까지 수용 가능...헬싱키 홍보 베이스캠프로 활용

핀란드 헬싱키市 / 문화·관광

- 핀란드 헬싱키市는 국제적으로 선발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Influencer: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들이 헬싱키를 홍보할 수 있도록 숙소인 헬싱키 시크릿 레지던스(Helsinki Secret Residence)를 무료로 제공
 - 헬싱키 시크릿 레지던스는 2016년 1월 개관한 아파트식 호텔
 - 수용인원은 100명이며 1년 내내 개방
 - 체류는 초대 형식으로만 가능하며 체류기간은 최대 일주일

- 배경
 - 도시의 규모가 작은 헬싱키가 글로벌 경쟁에서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돋보이게 하는 창조적 개념과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필요
 - 전통적인 매체 외에도 블로거, 브이로거(Vlogger: 비디오 블로거), 인스타그램머(Instagrammers)를 통한 홍보가 헬싱키의 스토리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함.
 - 헬싱키시는 지난 수년간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을 도시마케팅에 활용해 왔음.

- 체류 자격
 - 관광, 스타트업, 교육, 창조산업 등에서 전문성과 소셜미디어 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
 - 1월의 첫 방문객은 작년 가을 전 세계에서 지원한 응모자 200여 명 중에서 9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중국인 블로거 지아지아 주(Jiajia Zhu)로, 이를 포함해 미국, 스페인 등의 블로거가 초청됨.

- 특징
 - 소셜미디어와 도시마케팅을 연결한 프로그램
 -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에게 현지인처럼 생활할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여유 있게 도시를 답사하고 경험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팔로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일부 도시에도 있으나, 1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와 1년 내내 문을 열고 운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됨.

- 기타사항

- 이 프로그램의 주 후원 기업은 핀란드 관광공사인 비지트 핀란드(Visit Finland) 와 아알론코티 호텔 등이며 이외에도 라디오 헬싱키, 헬싱키대학교 및 핀란드 기업들이 후원에 참여
- 헬싱키시는 헬싱키 시크릿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헬싱키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베이스캠프가 되기를 기대
- 이 프로그램을 통해 헬싱키가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여행과 관광을 위한 장소 뿐만 아니라 연구와 일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추천되기를 희망

<http://www.visithelsinki.fi/en/professional/media/newsroom/helsinkisecret-residence-a-new-way-to-promote-helsinki-internationally>

<http://www.hel.fi/www/uutiset/de/helsinki-secret>

환경·안전

‘공기청정지역’ 도입해 대기오염 개선 추진

영국 버밍엄市 / 환경·안전

- 영국 버밍엄市는 2015년 12월 발표된 중앙정부의 ‘영국의 대기질 개선(Air Quality in UK: Plan to Reduce Nitrogen Dioxide Emission)’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버밍엄시의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구역(Clean Air Zone) 프로젝트를 가동
 - ‘영국의 대기질 개선’ 계획은 도심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 내 이산화질소의 함량을 줄이는 것이 주 내용임.
- 배경
 - 버밍엄시 등 영국의 중부지방 도시들은 대기 내 이산화질소 함량이 EU 대기환경 기준(EU Air Quality Standard)을 초과
 - 기준 초과에 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권고를 반영하고 초과에 따른 벌금을 피하고자 영국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기준치 이하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영국의 대기질 개선’ 계획을 수립
- 버밍엄시의 사전준비
 - 도시 내 심각한 공기오염 지역과 유해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의 조사에 착수
 - 공기오염 측정을 위해 5만 파운드(약 8,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년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
 -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 자동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7대를 설치
- 공기청정구역의 도입
 - 버밍엄시는 공기청정구역이 도입되면 2020년 이후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 중 심각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를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
 - 벌금은 개인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주로 노후화된 대형차량이 적용대상임.
 - 벌금의 규모는 아직 미정이나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할 예정

- 또한 시는 벌금을 높게 책정해 부가적인 수입 확보를 지양함.
- 시는 공기청정구역 도입과 관련된 정보를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

- 기타사항

- 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도심의 심각한 대기오염이 완화되기를 기대
- 배기가스 배출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후 차량이 환경친화적인 차량으로 바뀌길 기대
- 독일과 덴마크도 이와 유사한 계획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기질이 향상되었으며, 대중교통 차량이 디젤이나 전기차로 대체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

<http://birminghamnewsroom.com/no-congestion-charge-in-birming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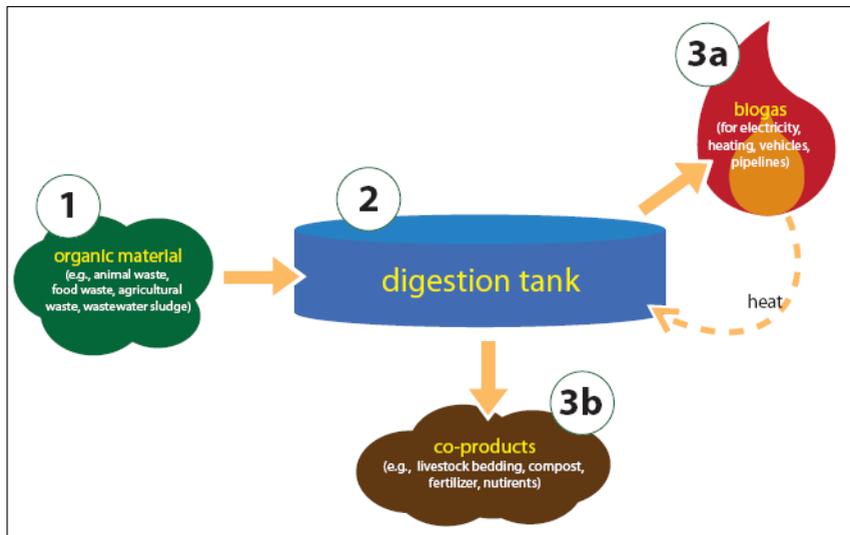
<https://www.gov.uk/government/news/improving-air-quality-in-cities>

<http://birminghamnewsroom.com/research-work-starts-on-clean-air-zone/>

‘혐기성 소화’ 소규모 쓰레기 처리시설 시범 설치

호주 빅토리아주 / 환경·안전

- 호주 빅토리아주는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쓰레기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혐기성 소화(Anaerobic Digestion) 쓰레기 처리시설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
 - 혐기성 소화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유기물쓰레기를 미생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방식
- 배경
 - 빅토리아주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는 90만 톤이며, 이 중 28만 톤이 상가 건물과 산업시설에서 배출됨(2011~2012년 통계).
 - 음식물 쓰레기의 대부분은 매립되며 재활용된 쓰레기는 10% 정도임.
 - 현재 호주에는 혐기성 소화 쓰레기 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대규모로 운영됨.



유기물쓰레기 분해 절차

- 시범사업의 목적
 - 많은 지역에 소규모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개별 건물이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물쓰레기를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하게 함.

-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주정부는 30만 호주달러(약 2억 7천만 원)를 들여 혐기성 소화법을 활용한 쓰레기 처리 방식을 상가건물, 산업시설, 정부기관에 도입
- 시범사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중소 규모 사업자 (피고용인 200명 이하)와 구 단위의 지방정부
- 참여업체에 최대 15만 호주달러(약 1억 3,500만 원)의 비용을 지원
- 참여업체는 자격요건 심사,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선정됨.
- 민간건물 및 산업시설에 혐기성 소화 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주정부가 설치비의 33%를 지원하며, 지방정부에는 50%를 지원
- 주정부는 올해 9월까지 참여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1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 시범사업의 활용 계획

- 주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사례연구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또한 성공 사례를 향후 소규모 유기물쓰레기 처리시설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

<http://www.premier.vic.gov.au/investing-in-innovative-waste-to-energy-recovery-syst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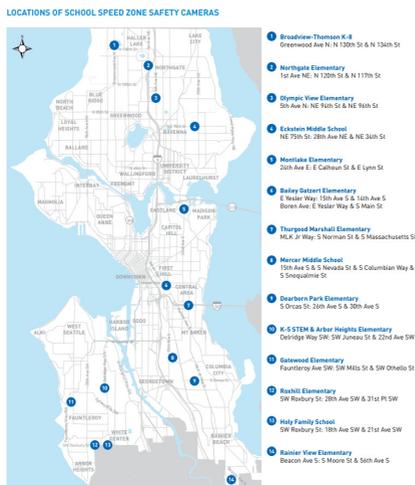
<http://www.sustainability.vic.gov.au/services-and-advice/funding/advanced-organics-processing-technology-grants>

도시교통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프로젝트 첫 사업 시동

미국 시애틀시 / 도시교통

- 미국 시애틀시는 2030년까지 보행자 사고 발생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에드워드 머레이 시애틀 시장의 공약인 ‘비전 제로(Vision Zero)’ 계획에 따라 ‘Move Seattle’ 프로젝트를 시행
 - ‘Move Seattle’ 프로젝트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통해 적극적 이동(Active Transportation)이 가능하도록 하는 건강·안전 사업
- 추진 배경
 - 시애틀시 초·중·고등학생의 83%는 도보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도보나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은 전체 학생의 24%에 불과(2015년 통계 기준)
 -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의 비율은 2005년 15%에서 2015년 24%로 증가하였으나, 이는 보행권역 내에 거주하는 학생의 비율(8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



시애틀시 내 스쿨 스피드 존 안전감시 카메라 설치 현황(좌) 및 학생 보행의 날 행사(우)

-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 이 사업은 '비전 제로' 계획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2015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추가부담금 조성안이 승인됨.
- 2016년 1월 머서 중학교 인근에 총 길이 600m, 폭 3.6m의 보행 및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공사를 시행
-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 9년 동안 12개의 공립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시행 될 예정이며 총 예산은 9억 3천만 달러(약 1조 1,500만 원)
 - 보행자로 조성비: 2억 7백만 달러(약 2,550억 원)
 - 산책로 및 보행자로 유지·보수비: 4억 2천만 달러(약 5,170억 원)
 - 인근의 도로교통 혼잡 완화 비용 등: 3억 3백만 달러(약 3,730억 원)

- 향후 계획

- 시애틀시는 앞으로 물리적인 보행환경 조성 외에도 학생들의 보행을 위협하는 난폭 운전, 속도위반 등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 이를 위해 스쿨 스피드 존 및 안전감시 카메라 설치 등을 확대할 예정

<http://murray.seattle.gov/page/2/#sthash.4v96sDWF.T7FEcHg5.dpbs>

<http://www.seattle.gov/transportation/docs/srts/SRTSActionPlan.pdf>

<http://www.seattle.gov/transportation/SafeRoutesMercerMiddle.htm>

온라인 주문 식료품, 지하철역에서 픽업 서비스

미국 워싱턴 D.C. / 도시교통

- 미국 워싱턴 D.C. 메트로는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온라인 식료품 전문점인 피파드 (Peapod)와 제휴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한 식료품을 지하철역에서 픽업할 수 있는 배달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
- 배경
 - 최근 워싱턴 D.C.와 뉴욕시에서 온라인 식료품업체의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온라인 식료품의 픽업장소로는 교외지역의 주유소 등이 이용됨.
- 메트로의 서비스 추진 배경
 - 계속되는 메트로의 재정난
 - 지하철, 버스, 옥외광고 시장 등에 대한 규제로 광고수입의 감소
 - 메트로는 새로운 수입원의 창출이 필요하며, 배달서비스는 다양한 수입을 통해 재정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임.
- 기타사항
 - 메트로는 이번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평가받을 때 워싱턴 D.C.의 91개 지하철역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



지하철역에서 주문한 식료품을 픽업하는 모습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dr-gridlock/wp/2016/02/01/now-at-a-metro-station-near-you-grcery-delivery/>

2020년까지 총연장 100km 자전거 고속도로 건설

독일 뒤스부르크市·함市 / 도시교통

- 독일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북서부 지역의 뒤스부르크(Duisburg)市와 함(Hamm)市를 연결하는 총연장 100km의 자전거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 구간을 2015년 12월 개통

- 주요 내용
 -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5km이며 도로 폭은 4m로 추월 차선도 있음.
 - 또한 자전거 이용자와 차량이 완벽하게 분리되도록 설계
 - 구간 대부분은 철도운행이 폐지된 철로망을 따라 조성
 - 도로가 교차하는 곳은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로 통과하도록 설계
 - 조명도 설치하고 제설작업도 할 예정

- 뒤스부르크와 함 구간의 선택 배경
 - 이 구간은 독일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통과하며 근거리엔 산업 도시, 숲, 농업지대가 산재해 있음.

- 자전거 고속도로의 문제점
 - 건설비용
 - 총 1억 8천만 유로(약 2,45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임.
 - 아직 전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
 - 일부 반대론자들의 주장
 - 자전거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 자전거는 날씨에 민감하고 교통량 감소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 향후 전망
 - 자전거 고속도로의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하루 5만 대의 차량통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의 입안자들은 전망

<http://road.cc/content/news/173907-germany-opens-first-stretch-bicycle-%E2%80%98autobahn%E2%80%99>

<http://www.citylab.com/commute/2016/01/germany-launches-its-national-bike-autobahn-cycle-network/422451/>

정보·기타

시민 질서의식 높이기 활동 프로젝트 시행

중국 상하이市 / 정보·기타

- 중국 상하이市는 문화강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중국정부 방침에 따라 ‘시민 질서의식 향상 프로젝트(市民自我提高项目)’를 시행하겠다고 2016년 1월 발표
- 시행배경
 - 중국정부는 세계 전략의 하나로 ‘문화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여 새로운 문화강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발표
 - 상하이시의 ‘시민 질서의식 향상 프로젝트’는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문화 소프트 파워’를 높이기 위한 정책에 기초한 일종의 후속 조치
 - 상하이시는 현대화된 사회주의 국제 대도시 건설을 목표로 세계적인 문화시설의 건립을 비롯한 문화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세계적인 문화시설의 건립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수준 높은 질서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행
- 주요 내용
 - 상하이시는 이 프로젝트에서 시민들의 질서의식 향상을 위해 고쳐야 할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중국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리에서 가래 빨기’, ‘실내 흡연’, ‘새치기’, ‘공공장소에서 전화 벨소리를 크게 하는 행위’ 등을 언급함.
 - 아울러 시민들의 질서의식 수준을 높여 상하이를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에게 상하이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겠다는 내용도 포함됨.

<http://politics.caijing.com.cn/20160125/4060027.shtml>

<http://life.southmoney.com/shehui/201601/59052.html>

2016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뉴욕市 / 빌 드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	15
뮌헨市 / 디터 라이터(Dieter Reiter) 시장	17
베를린市 / 미하엘 물러(Michael Müller) 시장	20
바르셀로나市 / 아다 콜라우(Ada Colau) 시장	22
도쿄都 / 마스조에 요이치(舂添要一) 도지사	23
요코하마市 / 하야시 후미코(林文子) 시장	24
상하이市 / 양송(杨雄) 시장	26
파리市 /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27
뉴사우스웨일즈州 /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지사	30

뉴욕市 / 빌 드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

- 미국 뉴욕市는 2016년 “이웃을 위해 일하는 하나의 뉴욕시”라는 부제로 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를 주요 쟁점으로 신년사를 발표함.

- 불평등 완화
 - 퇴직 보장
 - 민간부문 근로자의 퇴직 이후를 위한 저축 프로그램이 없어 퇴직 이후 사회적 약자 계층(저소득층, 이민자, 소수민족, 여성)의 사회적 격차 심화 가능성 존재
 - 미국 최초로 도시정부가 지원하는 민간부문 퇴직자를 위한 연금 형태의 저축 프로그램 시행 예정
 - 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 이후 소득 보장 예정

 - Far Rockaway 지역 재생
 - 다운타운의 Far Rockaway 지역 재생사업에 9,100만 달러(약 1,093억 원)를 투자해 다양한 시설들을 세울 예정
 - 이 사업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주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 건강 격차 해소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Health Action Center 설립
 - 뉴욕시 소유 건물들을 활용해 시민의 건강 격차 해소 위한 서비스 시행

 - LinkNYC
 - 시민들이 어디서나 도시행정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시 곳곳에 태블릿과 전자기기 무료충전소를 설치하고, 무료 와이파이 지역(Wi-Fi Zone)을 확대할 예정

- 삶의 질 향상
 - 총기사용의 법적 규제 및 억제
 - 350개의 버스정거장에 버스 카운트다운 시계(Bus Countdown Clock) 설치
 -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마련

- Clean NYC 정책: 낙서(graffiti) 제거, 휴일 쓰레기 처리 서비스 강화 등

<https://medium.com/@nycgov/one-nyc-working-for-our-neighborhoods-35ad77dd7780>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state-of-our-city-2016-future-plans.page>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state-of-our-city-2016-accomplishments.page>

뮌헨市 / 디터 라이터(Dieter Reiter) 시장

- 2015년 12월 독일 바이에른주 뮌헨市 디터 라이터 시장은 2016년 정책 수행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음.
- 주택 분야
 - '제6기 뮌헨 주택(2011~2016년) 프로그램'을 2016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
 - 연말 만료되는 뮌헨 주택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도 준비 중
 - 2015년 12월 공기업인 뮌헨 공익주택 유한회사(GWG München)가 사업시행자인 임대주택 공급사업계획안이 시의회에서 통과
 - 각 지구의 주택건설조합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주거 공급
 - 2030년의 뮌헨을 위한 미래도시개발계획 수립 작업 진행
- 교통 분야
 - 2015년 기본설계를 완료한 구시가지 터널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
 - 바이에른주 정부의 주도 아래 광역전철 제2통근터널 사업도 함께 추진 중
 - 일부 노면전차의 노선 확대
 - 도심 지역의 버스 노선 집중 및 증편
 - 자전거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자전거전용 주차장 확충
 - 공원 내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 교량 건설
 - 카 셰어링(Car Sharing) 프로그램 확대 시행
- 교육 분야
 - '학교 및 유치원 건설 실행계획 2020(Aktionsprogramm Schule-und Kita-Bau 2020)'을 통한 학교 및 유아교육 시설 확대
 - 2월 중 시의회에 신규사업안 제출 예정
 - 28개 학교에서의 부속건물 건립사업 별도 추진
 - '다년간 투자 프로그램(MIP) 2015~2019'에서 학교 등 교육기관의 설계, 증축 및 개축, 유지를 위한 비용 조달
 - 학교기관: 3억 3,000만 유로(약 4,517억 원) 지원
 - 유치원·보육원: 9,760만 유로(약 1,337억 원) 지원
 - 체육시설 투자: 2,140만 유로(약 293억 원) 지원

- 학교 내 인터넷 연결망 확충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 및 직업교육 기회 제공 확대

- 체육 분야
 - 뮌헨지역 내 구별 체육시설 신축 및 기존시설의 현대화 추진
 - 유치원 내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육프로그램 확대 시행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원 과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도시공간, 도로, 광장의 개발
 - 2013년 시의회가 의결한 대형시장 건물신축사업을 계속 추진
 - 보겐하우젠 지역 내 시립 공공병원의 확장·보수공사 진행
 - 하수도 정비 및 소방서 신축·개축 등

- 문화 분야
 - 새 뮌헨 시민극장 부지를 확정하고 올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2020년에 완공할 계획
 - 뮌헨 시립도서관 및 주민학교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제공 예정
 - 2016년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국제 미술전 ‘뮌헨 비엔날레’ 개최 예정
 - ‘예술지구(Kreativquartier)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위한 공동생활 및 작업 공간 제공
 - 지역 내 광장 구조변경, 하수도 정비사업, 헬라브룬 동물원의 코끼리 막사 신축 등

- 사회 정책
 - 뮌헨 직업센터 내 장기 실업자와 시리아 난민을 위한 지원사업 시행
 - 실직 기간의 단축을 목표로 실업자에 대한 개별적 접근 강화
 - 현재 2,500여 명의 난민이 직업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으며, 2016년 5,000여 명의 난민들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
 - 구직자와 구인자 간 연결을 위한 ‘제3노동시장’ 개설 및 운영
 - 노인 서비스 센터(Alten-und Service-Zentren: ASZ)를 6개 신설하여 총 36개의 센터를 운영할 예정
 - 청소년 망명자 센터(Young Refugee Center: YRC) 임시설치
 - 청소년 난민을 위한 생활보호·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환경, 기후 보호 및 보건
 -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한 탄소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행
 - 전기자동차 산업 촉진 프로그램(E-Allianz Program)의 추진을 통한 탄소 감축
 - 뮌헨 교통조합과 공동으로 전기 버스를 시범 운행
 - 2050년을 목표 연도로 한 새로운 환경 전략 수립
 - 각종 보건정책 및 동물보호 정책을 시행할 예정

- 시 차원의 일자리 창출
 - 산업연수 및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 600~700개의 직업교육 관련 일자리 확대
 - 인종차별이 없는 취업기회 확대 제공
 - 대학생을 위한 실습교육 과정 확대
 - 지역 내 대학들과 취업프로그램 공동진행
 - 미래형 직업 육성

<http://landeshauptstadtmuemchen.blogspot.de/2015/12/jahresvorschau-2016.html>

베를린市 / 미하엘 물리(Michael Müller) 시장

- 독일 베를린市는 2016년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삼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도시발전계획과 사업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함.
- 주택건설 및 저렴한 집세의 주택 제공
 - 올해 건설 예정인 시 소유의 주택조합에서 평방미터당 6.50유로(약 8,6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시민에게 주택 공급 예정
 - 베를린시의 다른 주택조합들도 신규주택 1만 호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예정
 - 2016년 토지이용계획 중 16개의 항목을 수정해 1만 4천 호의 신규주택 건설이 가능하게 할 계획
- 난민을 위한 주택 건설 프로그램
 - 난민을 위한 주택을 시내 10곳에 3,000호 건설
- 테겔공항 부지 개발
 - 올해 1월 테겔공항의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공모전 실시
 - 5천 호의 신규주택 건설, 상업 및 서비스산업 유치
 - 6개의 유치원과 1개의 초등학교, 1개의 상급학교 설립 예정
 - 공공녹지 조성
- 원도시 조성사업
 - 몰켄마르크트 지구를 옛 몰켄 시장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주택·일자리·숙식·관광 및 문화시설을 갖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지구 단위계획을 가을에 확정할 예정
 - 원도심 조성사업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행사 및 전시회 개최
- 자전거교통에 대한 투자 확대
 - 자전거교통 인프라 개선 및 보수작업에 1,530만 유로(약 201억 원) 지원
 - 도로보수지원금으로 시내 자전거 도로선 및 보호선 수리

* 2018년부터 신공항 이전으로 테겔공항 지구는 비워지게 됨.

- 녹지 확대
- 베를린 도시 전체가 녹지도시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시 차원의 녹지 확대
 - 마우어파크(Mauerpark) 면적을 8헥타르에서 13헥타르로 확장
 - 도심공원 내 벼룩시장 장터 유지에 590만 유로(약 77억 원) 투자 예정
- 베를린시 병목공원(Flaschenhalspark)과 기념비광장을 지나는 원거리 자전거도로 개선
- 요크다리(Yorckbrücken) 개선작업을 통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 조성
- 2017년 베를린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정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5/pressemitteilung.428913.php>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601/nachricht5901.html

바르셀로나市 / 아다 콜라우(Ada Colau) 시장

- 바르셀로나 시장 아다 콜라우(Ada Colau)는 바르셀로나 도시기본계획(PAM 2016~2019)을 바탕으로 한 2016년 중점 계획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힘.
- 불평등과의 싸움
 - 최근 수년간 도시 내 불평등 문제의 심화
 - 저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20%에서 40%로 증가
 - 부유층의 거주지역인 Pedralbes 지역과 빈곤층의 거주지역인 Raval 지역 간 주민들의 평균 수명 차이는 6년
 - 지역별 개발계획(Pla de Barris)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사회결속력 강화로 도시 내 불평등 문제 해결 시도
 - 바르셀로나 도시기본계획(PAM 2016~2019) 중 사회부문에서 예산 1억 5천만 유로(약 2,000억 원)를 저소득층 지역에 투자할 예정
- 새로운 경제 모델
 - 도시경제 모델의 다양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연구와 혁신을 위한 정책 등 시행 예정
 -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http://eldigital.barcelona.cat/colau-anuncia-la-posada-en-marxa-del-pla-de-barris-de-barcelona_286129.html

도쿄都 /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지사

- 2016년 1월 도쿄都 마스조에 요이치 도지사는 신년사 발표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도쿄의 미래 구축’과 이를 위한 도민과의 협력을 강조함.
- 미래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도쿄 그랜드 디자인’
 - 도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넓은 시야와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
 - 2015년부터 2040년대 도쿄의 모습을 구상한 ‘도쿄 그랜드 디자인’ 사업 검토 중
- 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 도쿄의 발전을 위한 각 국과 부서 간 정보 및 아이디어 공유는 중요
 - 도민과의 협력을 통한 도정(都政) 실현을 위해 도민에게 공개적이고 신속한 정보 제공 필요
 - 오픈데이터 활용뿐 아니라 정보관리의 보안문제도 중요
- 현장중심 정책의 중요성
 - 현장 관련 정보와 현장문제 해결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도지사에게 즉시 접수 가능한 환경 구축
 - 도시외교, 위기관리, 국제금융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쿄도 전 직원의 능력 개발 및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의식 필요
- 일과 생활의 균형
 - 여성근로자가 결혼 및 육아에 어려움이 없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환경 조성
- 2019년 럭비 월드컵 및 2020년 도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 세계의 여러 국가와 경쟁을 통한 일본의 발전과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목표로 국가와 조직위원회, 전국 자치단체, 민간단체 간의 공동협력이 중요

<http://www.metro.tokyo.jp/GOVERNOR/ACTIVITY/160104.htm>

요코하마市 / 하야시 후미코(林文子) 시장

- 요코하마市 하야시 후미코 시장은 2016년 1월 6일 신년사 발표에서 2016년은 요코하마시의 '중기 4개년 계획'을 시행한 지 3년째에 접어드는 해로 요코하마시의 미래 구축에 중요한 해임을 강조함. 올해 수행 과제로 경제활성화, 마을만들기, 여성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내세움.
- 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 시내 중소기업과 상가 지원 및 새로운 기업 유치
 - 요코하마시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구축을 위한 시도
- 마을만들기 사업
 - 국제 비즈니스 거점 형성을 목표로 요코하마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
 - 야마시타 부두 재개발, 미나토 미라이20 도시 지역에서의 MICE 시설 정비, 신(新) 시청사 정비와 함께 관내·관외 지역의 활성화도 꾸준히 진행
- 재해에 대한 대비
 - '시민 방재 센터(市民防災センター)' 활용을 통한 지역방재 역량 강화
 - 지진 및 화재에 대한 대비 강화
- 여성 기업 지원 및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남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을 위한 업무방식 개혁 추진
- 어린이 및 육아 지원
 - 대기아동 제로를 목표로 한 '보육소 대기아동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방과 후 아동 대책에도 집중하여 종합적인 어린이·육아지원을 계속할 예정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
 - 요코하마 워킹포인트 사업(よこはまワーキングポイント事業)을 중심으로 한 건강만들기(健康づくり)
 - 의료와 간호를 잇는 재택의료 제휴 거점 개설

- 의료·간호·생활지원 등을 종합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
- 문화 예술 지원
- 2020년 도쿄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대회 때 요코하마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을의 활기 중요성 강조

<http://www.city.yokohama.lg.jp/ex/mayor/interview/2015/20160106nentousyokan.html>

상하이市 / 양송(杨雄) 시장

- 중국 상하이 양송 시장은 2016년 신년사에서 2016년은 중국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인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이 시작되는 해임을 알리며 2016년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함.
- 상하이市는 중국정부의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기반을 두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제 대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
 - 개혁을 위한 결속, 개방 확대,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
- 환경보호와 생태문명 건설
- 환경 질량(环境质量)의 개선
 -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의한 환경정책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으나, '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환경 질량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
- 연금, 의료, 교육, 교통분야 등 다방면으로 개선 노력
 - 모든 시민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민생 보장과 개선에 힘쓸 예정

<http://news.163.com/16/0101/00/BC71416A00014AEE.html>

파리市 /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 2016년 1월 6일 안 이달고 파리시장은 시의회에서 신년사와 함께 2016년 파리시정 중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밝혔음.

- 도시 치안
 - 꾸준한 테러 대비
 - 작년 파리시 테러에 대비한 경계태세 강화, 프랑스 정부의 상티넬 작전에 따른 경찰인력 보충
 - 학교와 어린이집 보호 강화
 - 경찰관과 소방관 장비 지원자금 확충
 -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의 효율성과 일관성 개선
 - 165곳에 신규 보안 카메라 설치
 - 일드프랑스 지역 내 1만 5천 개의 보안 카메라 단일 네트워크 연결 시스템 구축
 - 치안 관련 IT 기술 혁신
 - 긴급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와 대중 정보 관리대책 마련
 - 파리시 인큐베이터 센터 내 치안 관련 기술혁신 플랫폼 개설

- 민주주의와 시민성
 - '시민카드' 출시
 - 국적·신분과 상관없이, 7세 이상인 파리 거주자는 신청만 하면 발급 가능
 - '시민카드' 소유자는 시의회 참관이나 시민대학 강좌 수강 등 혜택 가능
 - '민주주의 토론의 밤'
 - 4월 개최 예정인 민주주의 밤샘 토론회에서 대학교수와 대학생, 시민단체 간 다양한 의견과 세계관 공유
 - 참여 예산제
 - 참여 예산제에 시예산 5억 유로(약 6,590억 원) 배정, 예산 사용처는 시민투표로 결정
 - 이 중 3억 유로는 빈곤지역 프로젝트 자금을 배당하여 실질적 평등 담보
 - 1억 유로는 학교 관련 프로젝트에 배당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방안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문화 분야
 -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신규 문화시설 개장
 - 파리지 레알(Les Halles) 지구 재정비 및 음악학교·도서관·힙합 연습장·아마추어 예술공연장 등 다양한 신규 문화시설 개장
 - 파리지와 자매도시인 뉴욕시와 문화교류 확대
 - 희극배우 콜뤼슈(Coluche)의 사후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전 마련
 - 2016년 2월 25일 베르됭 전투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예정
 - 1차 세계대전 전사자 사이버 플랫폼 개장
 - 프랑스 공화국을 지킨 시민을 추모하는 기념물 마련

- 교육 및 보육 분야
 - 교육 지원
 - 중학교 3학년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연대경제,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기회 제공
 - 직업학교나 고등학교에 진학할 예정인 중학교 3학년 중 성적이 좋지 않은 2,000명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담당할 대학생 선발
 - 청소년 1,000명에게 아동 레크레이션 활동가(BAFA Citoyens) 과정 교육 지원
 - 파리 12구에 국립 신(新) 소르본 대학교 제2캠퍼스 건축
 - 보육 지원
 - 시립 어린이집의 정원을 5,000명으로 확충
 - 시에서 보육교사 120명을 추가 고용

- 고용과 혁신
 - 파리지와 수도권 지자체 간 공동 컨소시엄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파리지와 위성도시의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투자 예정
 - ‘파리 코드(Paris Code)’와 같은 IT 개발자 양성 정책 시행
 - 빈곤지역 내 소형 고용상담센터 설치

- 취약계층 지원
 - 지속적인 시리아 난민 수용
 - 2016년 1월부터 긴급 난민수용센터 2곳 개설

- 자국에서 언론자유를 박탈당한 외국인 언론 관련자에게 스튜디오 제공
 - 노숙자 쉼터 인원은 외국인 난민 수용과 별개로 유지 예정
- 주택 및 환경 분야
 - 신규 주택건설에 대규모 투자
 - 2016년 신규 주택 1만 호 공급 및 사회적 주택 분양
 - 사회적 주택단지 내 관리서비스 개선
 - 임대주택공사에서 공청회를 마련하여 입주자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식 개선안을 준비할 예정
 - 에너지 저효율 건물 1,000호 개보수 지원
 - 가구별 녹색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
 -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등을 수집해 메탄화 사업 방식 연구
 - 보행자 거리 확대
 - 공용 녹지공간 확대
 - 에너지 전환정책을 통한 에너지 절약도시로의 전환 노력
 - 스포츠 분야
 -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개최 및 하계올림픽 개최지 입후보
 - 스포츠 분야 전문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센터 내 점프대(Tremplin) 개설
 - 파리시 체육시설 12곳 운영을 위한 사업 공모
 - 스포츠클럽 및 단체의 체육시설 이용절차 단순화를 통한 자율성과 책임감 부여
 - 신규수영장 4개 설립 및 기존 수영장 개보수 작업

<http://www.paris.fr/actualites/les-grandes-mesures-annoncees-pour-2016-3232>

뉴사우스웨일즈州 /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지사

- 마이크 베어드 주지사는 뉴사우스웨일즈州가 호주 경제를 선도하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거의 업적에 안주해서는 안 됨을 강조함. 단기적인 일보 전진이 아닌 중장기적인 개혁으로, 특히 아래와 같이 12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힘.
- 신규고용 창출
 - '뉴사우스웨일즈를 위한 일자리(Job for NSW)'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4년간 신규 일자리 1만 4천 개를 창출할 예정
 - 주 정부는 민간섹터를 지원하여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기반시설 건설
 - 인구 증가 및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대한 교통, 교육, 보건,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반시설을 건설·제공할 예정
- 가정폭력 감소
 -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로, 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임.
 - 가정폭력 재발 비율을 12개월 이내로 5% 줄이는 것이 목표
- 병원 서비스 개선
 - 통합병원 서비스 프로그램(Whole of Hospital and Integrated Program)'을 통해 응급실 방문 환자의 81%가 4시간 이내에 진료 가능
 - 응급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통한 환자의 건강보호 외 입원환자 수 감소 효과 기대
- 아동 비만과의 전쟁
 - 과체중 및 비만 아동 비율 5% 감소를 목표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접근할 예정
- 교육성과 개선
 - 교사의 전문성 향상, 개별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학교 재정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교육 성취도 향상 목표

- 앞으로 3년 동안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전국일제고사 상위권 학생 비율을 현재 대비 8% 이상 증가 목표
- 아동 보호
 - 아동 보호 시스템 시행으로 12개월 이내 상해 재발 아동 비율이 과거보다 감소
 - 2016~2017년까지 상해가 재보고되는(Re-reported) 아동의 비율을 현재 대비 15% 감소 계획
- 청년 홈리스 감소
 - 주정부는 청년 홈리스 문제 해결을 목표로 비정부 및 비영리 섹터와 협력을 통해 홈리스 청년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장기 홈리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할 예정
 - ‘일시주거 서비스(Specialist Homelessness Services)’를 통해 2016~2017년까지 청년들을 장기숙소로 이전하는 비율을 10% 높일 계획
- 공공기관의 문화적 다양성 확대
 - 정부기관 내 문화적 다양성 확보는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생산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됨.
 - 앞으로 10년간 정부 고위직에 종사하는 원주민과 여성의 비율을 현재 대비 100%, 50% 늘릴 예정
- 청결한 환경 유지
 - ‘빈 용기 보증금 제도(Container Deposit Scheme)*와 쓰레기관리 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율 40% 감소 및 재활용 증가 계획
- 주택 건축 승인 신속화
 - 주택의 공급 속도 증진, 주택산업 및 시장의 활성화, 주택 관련 직업종사자와 건축기술자의 고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이후 주택 (재)건축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 단축 예정
 - 현재 주택 (재)건축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은 대부분 40일 이내

* 빈 페트병을 구매상점에 가져가면 일정 금액으로 돌려주는 캠페인

- 공공서비스 만족도 개선
- 새로운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로서 '서비스 NSW(Service NSW)'를 개시해 지역사회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 질 개선에 집중
- 매년 공공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일반 고객과 비즈니스 고객의 만족도 모니터링 계획

<https://www.nsw.gov.au/making-it-happen>